

“Gogoro (GGR: NSQ)”

스쿠터계의 테슬라

Summary

대만 1위
전기 스쿠터 기업
나스닥 입성

대만의 전기 스쿠터 제조사 **Gogoro(고고로)**가 4월 5일 나스닥 시장에 스펙 상장했습니다. 전기 스쿠터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배터리 스와핑**’이 고고로의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 전기 스쿠터는 자주 충전이 필요하고 충전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로 스쿠터의 고객은 별도의 충전 없이 배터리 교환소 ‘GoStation’에서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 GoStation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스쿠터 이용 빈도와 시간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배터리의 양을 매달 구독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Gogoro 웹사이트

고고로의 시총은 약 **4.1조원**이며, 스펙을 통해 4천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스펙 공모가는 \$10, 합병 후 현재 주가는 \$14.10로 +41% 급등했습니다. 확보된 자금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History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 스쿠터 사업

2011년 대만의 산업 디자이너였던 Horace Luck와 엔지니어 Matt Taylor가 공동 설립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 HTC에서 직장 동료로 만난 두 사람은 대만의 이륜차 생태계와 여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 오염에 집중했습니다. 스쿠터는 대만의 주요 교통 수단으로 1,400만대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고로는 설립 이후 모바일 플랫폼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썼고, 2015년 처음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판 가능한 스쿠터를 선보였습니다. 자체 스쿠터 제조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 배터리 스와핑 관련 하드웨어를 납품해서 ‘**고고로 에너지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인도의 Hero社, 2022년에는 일본의 Yamaha社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륜차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확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폭스콘, Hero,
스미모토 그룹 등
기술 기업들의
파트너십과 투자

총 4번의 펀딩 라운드를 통해서 약 6천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17년에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 운동가 엘 고어, 일본의 스미토모 그룹 등에게서 약 3,700억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2021년 아이폰의 최대 조립생산기업인 폭스콘과 파트너십을 맺고, 2022년 1월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은 인도의 Hero로부터도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외 싱가포르 국가 투자 펀드인 Temasek,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의 유망 스타트업 GoTo도 고고로에 투자했습니다.

Batteries [+ Add to myFT](#)

Gogoro bets on China's electric scooter market ahead of Spac deal

Taiwan battery group lured by potential of 300m riders despite decoupling and Beijing's tech crackdown

Gogoro's entrance to the Chinese market comes at a critical juncture for the company, which is backed by Singapore's state-owned investment fund and AI Gore's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Luke, a former Microsoft executive, plans to raise \$50m by taking the company public through a merger with a blank cheque vehicle in the first quarter of 2022.

출처: Financial Times

Business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 후 확장 중

2021년 매출은 약 3억3천 달러로 추정됩니다. 전년대비 10% 감소한 수치이나 당초 기대치보다 10% 높은 매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이용률이 하락하며 매출이 감소했기에, 전염병이 종식된다면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1월과 2월의 판매대수는 7,308대이며, 작년 동기 대비 132.2% 증가했습니다. 2022년 매출 가이드는 5억 달러입니다.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계약, 글로벌 확장이 가속된다면 추후 흑자 전환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스쿠터 등 하드웨어 판매와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스쿠터 판매 매출 비중이 2020년 상반기 77%에서 2021년 상반기 64%로 감소했습니다. 구독 서비스 매출 비중이 23%에서 36%으로 증가했으며, 이 매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구독자의 수는 45만명 이상이고, 일평균 34만번의 배터리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매출 대부분이 대만에서 발생합니다. 고고로는 시장의 **압도적 1위** 기업으로, 2021년 10월 기준 대만 전기 스쿠터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의 98%는 고고로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2021년 1월~11월 신규 등록 전기 스쿠터 중 6만4천 대가 고고로 제품이며, 2위 Aeon은 7천 대에 불과합니다.

USD(천)	2019	2020	1H20	2H20	1H21
매출	439,240	364,125	171,351	192,774	144,787
영업이익	(11,096)	(36,499)	(13,093)	(23,460)	(33,979)
순이익(손실)	(13,088)	(49,280)	(15,622)	(33,658)	(39,815)

출처: Gogoro 투자설명서

Key Insight

급성장하는 전기 스쿠터 시장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전기 스쿠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장 규모는 18.7조원 정도이며, 연평균 10.7%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1년 대만의 이륜차 시장 규모는 1.5조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대만 이륜차 시장의 규모가 14.3%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솔린 스쿠터 판매량이 2020년 10월 9만대에서 2021년 10월 6.7만대로 24.7% 감소한데 반해, 전기 스쿠터 판매량은 9천대에서 1.1만대로 18.7%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 스쿠터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고고로의 시장 지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중국 등으로 적극적 글로벌 확장

스쿠터 시장의 규모가 큰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주요 이륜차 제조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글로벌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각 제조기업들이 생산하는 이륜차에 배터리를 탑재하고 관련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파트너십입니다. 2021년 4월, 세계 최대의 이륜차 제조업체인 인도의 Hero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인도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5월 즈음에는 중국 오토바이 기업 Dachangjiang Group(DCJ), 중국 전기 이륜차 기업 Yadea와 계약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전세계 스쿠터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에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모바일 주문형 서비스 앱 Gojek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Gojek의 모회사는 GoTo로, 고고로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일본 Yamaha와 계약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는만큼, 고고로의 글로벌 확장에 주목해야 합니다.